

간호학에서의 사회지능 연구 :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경란¹ · 이나경² · 오희³

¹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 ²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ocial Intelligence in Nursing : A Scoping Review

Kyung Ran, Lee¹ · Na Kyoung, Lee² · Hee, Oh³

¹*Samsung Changwon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urse*

²*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Cheongam,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map the overall status and scope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nurses' social intelligence through a scoping review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key concepts, evidence gap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Arksey and O'Malley framework. A systematic search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bases was performed, resulting in the selection of twelve studies for analysis. **Results** : The analysis indicated that research on nurses' social intelligence is still in its infancy, with studies published only since 2015. The majority of these studies were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ies(n=9), and the Tromsø Social Intelligence Scale (TSIS) was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measurement tool. Key related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job,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Notably, no intervention studies aimed at enhancing nurses' social intelligence were identified. **Conclusion** : This study highlights a significant gap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lack of social intelligence measurement tools that are tailored to the specific context of clinical nursing, as well as the absence of evidence-based intervention programs. These findings strongly suggest the necessity for future research to develop a valid tool for measuring nurses' social intelligence and to design effective enhancement programs aimed at improving patient care and fostering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Key words : Literature review, Social intelligence, Nurses, Clinical compet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지능으로[1],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인간중심 간호가 더욱 중요한 현 시점에서 간호사의 사회지능은 필수적인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지능은 타인의 사고 및 행동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2],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개인의 대응 능력이다[3].

간호사는 복잡하고 긴박한 의료 상황에서 환자, 보호자, 주변 동료 등과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맺으므로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사회지능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료 오류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위기를 능숙하게 해결한다고 하였다[4]. 병원 조직에서 간호사와 환자, 동료 간의 긴밀한 협력은 환자 안전 및 간호의 질과 관련되므로[A1,5] 간호사의 사회지능 함양은 중요하다.

간호사의 사회지능은 감성지능, 문화지능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6],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Choi[7]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치료에 활용하는 역량이라고 하였고, 문화지능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각각 정의되었다[8]. 사회지능은 개인에게 집중하는 감성지능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지능과 달리, 간호사-환자-병원 구성원 사이의 조화와 협력이라는 관계의 맥락을 강화시키는 능력이다. 사회지능은 조직의 사회화와 적응 스트레스 극복 및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며, 병원 조직의 성과, 환자안전, 직무만족 및 이직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2-A11].

사회지능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

는 지능으로[9],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배워갈 수 있다고 하였다[10]. 선행 연구에서 대인관계 구축을 위한 학습은 성공적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11] 간호사의 서비스 질 관리와 병원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의 사회지능 향상 중재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문헌의 지형을 탐색할 때 널리 수행되는 고찰 유형으로, 탐색적 연구질문을 통해 특정 연구분야의 개념과 연구 방법 및 개요를 제공하는 지식 합성의 한 형태이다[12]. 이는 특정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아니라, ‘선행 문헌들에서 관심 주제에 대하여 어떤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가?’ 와 같은 광범위한 질문에 답을 도출한다[13].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일반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전 정보 수집과 평가에 활용되며, 체계적 문헌고찰과는 다르게 연구 증거의 폭과 깊이를 제시하여 연구 공백을 식별하고, 미래 연구를 위한 분야를 제안하는 데에도 유용한 방법이다. 또 어떤 주제나 개념과 관련된 문헌의 범위를 조사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14]. 따라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호사 사회지능의 실재와 유용성, 과거의 발현 형태, 활용 영역 등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정리하여 사회지능의 본질적 속성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회지능은 주로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은 개념과 혼용되어 있어[A3,15] 개념에 대한 명확한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출판된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 관련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개념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래 간호사의 필수 역량인 사회지능 향상 중재 개발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근거기반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제안하기 위한 간호사의 사회지능 향상 중재 개발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 간호학 문헌에서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학적인 사회지능과 관련된 변수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의 출판시기, 출판국가, 연구방법 등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의 관련변수와 주요 결과를 파악한다.

II .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사회지능과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Arksey와 O'Malley[16]가 제안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수행 절차에 따라 5단계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 연구질문 개발(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2단계, 관련 연구 확인(identifying relevant studies), 3단계, 문헌 선정(study selection), 4단계, 자료 기록 및 분석(charting the data), 5단계, 결과 수집, 요약, 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의 단계적 절차에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팀 전원이 수행 절차 5단계 과정에 참여하여 1, 2, 5단계에서는 연구자 간 토론 및 합의를 통하여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3, 4단계에서는 교차확인을 바탕으로 적절한 연구자 간 일치율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 결과 보고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보고를 위해 체계적인 보고 지침을 따랐다[17]. 본 연구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범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개별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았다.

1) 1단계 : 연구 질문 개발 및 도출하기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질문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 질문을 통해 분석할 논문의 범주가 정해지고 문헌고찰의 초점을 명확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을 설정할 때 대상, 개념, 맥락 및 배경 형식인 PCC(Population, Concept, Context)로 구체화하여 문헌 선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간호사로, 주요개념은 사회지능으로, 맥락 및 배경은 간호학 전체 논문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출된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사회지능을 다룬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간호사의 사회지능 관련 변수는 무엇인가?
-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

2) 2단계 : 관련 연구 검색

간호사의 사회지능 관련 연구 검색 범위는 국내외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기간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고, 언어유형은 영어, 한국어를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검색원으로 국내 문헌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로 검색하였고, 국외 문헌은 CINAHL(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MEDLINE(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Online), Cochrane Library로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간호사' AND '사회지능'을 기본으로 하되, '간호', '사회적 지능', '대인관계 능력' 등의 유사 용어를 조합하여 진행하였고,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nurses' AND 'social intelligence'을 기본으로 하여 MeSH terms, 절단 검색, 그리고 'social cogn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nursing staff', 'social com-

petence’, ‘interpersonal skills’ 등의 확장된 검색어 조합을 통해 검색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인 검색을 수행하였다. 문헌 검색은 IRB 승인일(2024년 7월 30일)로부터 2025년 9월 03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면제 승인을 받고 시작하였다(승인번호 SCMC IRB 2024-07-011-001).

3) 3단계 : 문헌 선정

주제범위 문헌고찰 권고사항[7]에 따라 문헌 선정 및 배제기준에 관한 결정을 위해 연구팀이 3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포함기준은 (1) 간호사 대상 연구, (2) 국내외 학술지에 영어나 한국어로 발표된 연구로 하였다. 다만,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논문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1) 학술대회 포스터 및 초록 발표 연구, (2) 학위논문, (3) 평론 및 월간지, (4) 사회지능 외의 유사 개념(감성지능, 문화지능 등) 연구 (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등이다.

연구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논문 총 214편 중 중복논문 31편을 제외한 뒤, 일차로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각 항목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각각의 독립적 평

가 이후, 선정과 제외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일치도 계산(initial agreement) 틀을 이용하여 계산식(일치하는 항목 수 ÷ 전체 항목 수 × 100)을 바탕으로 일치도 확인을 시행하였다.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일례로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지능의 하위개념으로 볼 것인지 결정을 하는 세부사항의 경우, 연구자 3인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로 제외하여 총 12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4) 4단계 : 자료기록 및 분석

최종적으로 추출된 1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정보와 연구질문에 따른 핵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연구팀이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기준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자료 분석틀을 엑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은 탐색적 성격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사회지능의 연구 동향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양적분석으로 출판시기, 출판 국가, 출판유형, 연구방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간호경력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틀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주제 분석으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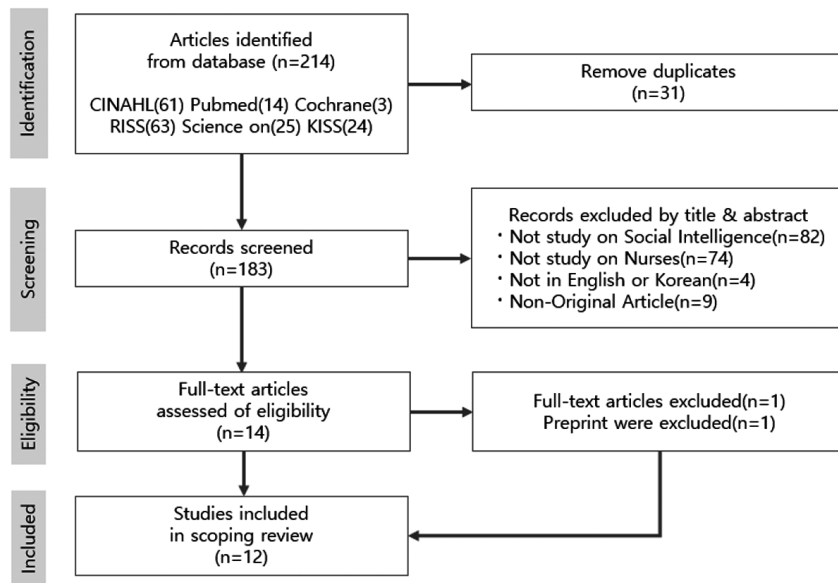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런 변수를 선행연구[19]에 따라 개인차원, 조직차원, 업무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차원은 간호사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이며, 조직 차원은 조직 특성을 포함하고, 직무 차원은 간호업무 관련 변수이다.

Ⅲ. 연구 결과

5단계인 결과 수집, 요약 및 보고의 과정을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수집된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하여 양적분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1. 양적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판시기, 출판국가, 출판유형, 연구방법, 측정도구, 연구대상과 연구대상의 간호경력 등을 분석하였다. 양적 요약분석은 Table 1과 같다.

1) 출판시기

전체 12편의 논문을 연간별 게재년도 범주를 살펴보면 2015년 1편을 시작으로 2016년 2편, 2021년 1편, 2022년 2편, 2024년 2편, 2025년 4편으로 2015년 이후

Table 1. Quantitative Summary Analysis of Studies for the Scoping Review

(N = 12)

No	Authors	Year	Country	Main topic	Study design	Participants	Sample size	Measuring tool
1	Wang S, et al	2015	China	Research progress on soci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field	Literature review	—	—	—
2	Park H, Lee K	2016	South Korea	The effects of social intelligence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Descriptive study	Nurses	188	TSIS [†]
3	Lee KR, Kim JM	2016	South Korea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in nurses	Descriptive study	Nurses	392	Goleman & Boyatzis[9]
4	Rogers S, et al	2021	Australia	Developing work readiness in graduate nurses	Integrative review	—	—	—
5	Almotairy M, et al	2022	Saudi Arabia	Work readiness of newly graduated nurses	Cross-sectional study	New nurses	174	WRS [‡]
6	Helaly SH, et al	2022	Egypt	Effects of head nurses' leadership behaviors and social intelligence	Descriptive study	Staff nurses	256	modified TSIS [§]
7	Lee KR, et al	2024	South Korea	Concept analysis of social intelligence of nurses	Concept analysis	—	—	—
8	Özkan S, Yıldız A	2024	Turkey	Determination of EI, SI and autism awareness levels of paediatric nurses	Descriptive study	Nurses	82	TSIS [†]
9	BozkurtTonguç A, Karakaş SA	2025	Turkey	Comparison of soci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Descriptive study	Nurses	336	TSIS [†]
10	Qu Y, et al	2025	Australia	Factors associated with newly graduated nurses' work readiness	Cross-sectional Correlation study	New nurses	206	WRS [‡]
11	Kim JJ	2025	South Korea	The effects of hospital nurses'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on patient-centered care	Descriptive study	Nurses	146	TSIS [†]
12	TiryakiSen H, et al	2025	Turkey	A pathway for nurses from work strain to anger	Descriptive study	Nurses	446	TSIS [†]

TSIS[†] : The Tromsø-Social Intelligence Scale

WRS[‡] =Work Readiness Scale, Modified TSIS[§] =Researcher-adapted version of the Tromsø Social Intelligence Scale tailored for specific study context

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지능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0년 이후에 75.0%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2015년부터, 국내의 경우 2016년부터 국내외가 비슷한 시점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2) 출판국가

출판국가는 한국이 4편(33.3%)으로 가장 많았고, 터키 3편(25.0%), 호주 2편(16.7%), 이집트 1편(8.3%), 사우디아라비아 1편(8.3%), 중국 1편(8.3%)이었다.

3) 출판유형

학술지의 종류는 간호학 관련 학술지가 10편(83.3%), 타 분야 관련 학술지가 2편(16.7%)이었다.

4) 연구방법

전체 연구 중 9편(75.0%)이 조사연구로 모두 서술적 조사연구였으며, 그 외는 비체계적 문헌 고찰 2편(16.7%), 개념분석 연구 1편(8.3%)으로 확인되었다.

5) 측정 도구

측정도구를 사용한 조사연구 중 6편이 Silvera 등[21]이 개발한 TSIS(The Tromsø Social Intelligence Scale, 트롬소 사회지능 측정도구)를 도구로 사용하였다[21]. 그 중 1편은 TSIS와 the Social Intelligence Scale[22], ESI[23]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Walker 등[24]이 개발한 WRS(Work Readiness Scale)을 사용한 연구

가 2편, Goleman과 Boyatzis[9]의 측정척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한 도구[25]를 사용한 연구가 1편이었다.

6) 연구대상

문헌 모두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력에 따른 분류로는 신규 간호사 대상이 2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함께 포함한 연구가 1편[A1]이었다.

2. 주제분석

1) 관련 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를 개념 정의 범주에 따라 [19] 개인 차원, 직무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하여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개인 차원에는 소진[A2, A3], 감정노동[A3], 감성지능[A3], 이직의도[A2,A3], 개인의 사회적 성숙 특성[A5], 선천적 사회지능 수준[A5], 불안[A12] 변수가 포함되었다. 직무 차원으로는 업무 준비성[11,A5], 직무 참여[A6], 업무역량[A5], 간호역량[A7], 환자중심간호[A11], 업무 긴장[A12]으로 구분하였다. 조직 차원으로는 조직적 통찰력[A5], 리더십 유형[A6], 사회적 기술[A1]이 포함되었다.

최종 선정 연구 중 사회지능과 관련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총 9편이었고 그 중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는 총 7편이었다. 개인 차원의 감성지능($r=.65, p=.001$), 심리적 회복탄력성($r=.44, p<.01$)은 사회지능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and Key Variables of Dimension (N=12)

Dimension	Key variable	Correlation(ρ)	Appendix No
Individual	Burnout	-.34(<.001)	A3
	Emotional intelligence	.65(.001)	A3
	Turnover intention	.15(<.005)	A2
	Anger	-.28(<.001)	A12
	Psychological resilience	.44(<.01)	A9
Job	Weekly working hours	.22(<.01)	A5
	Patient-centered care	.36(<.001)	A11
	Work strain	-.40(<.01)	A12
	Work competence	.70(<.01)	A10
Organization	Organizational acumen	.35(<.01)	A10

고, 소진($r=-.34, p<.001$), 분노($r=-.28,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직무 차원에서 사회지능은 주당 근무시간($r=.22, p<.01$)과 환자중심간호($r=.36, p<.001$), 업무 역량($r=.70, p<.01$)과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고, 업무 긴장($r=-.40, p<.01$)은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다. 조직 차원의 조직적 통찰력($r=.35, p<.01$)이 사회지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의미있는 결과 및 제언 분석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와 향후 연구 및 실무, 정책을 위한 제언은 Table 3과 같다.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로 첫째, 사회지능은 개인차원에서 감정노동, 소진, 이직의도, 분노 반응 같은 부정적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작용 한다[A2,A3,A12]. 둘째, 직무 차원에서 사회지능은 신규 간호사의 성공적인 실무 전환을 돕고, 경력 간호사의 환자중심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직무 역량이며, 임상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특성이 있다[A5,A6,A8]. 셋째, 조직 차원에서 사회지능은 수간호사의 리더십 역량으로 부서의 사회적 자본과 팀원의 직무 관여를 높여 긍정적인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6,A12]. 그리고 간호사에게 사회지능은 핵심역량이나 현재까지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는 간호 실무의 고유한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도구에 의존하고 있어 임상 상황에 맞는 사회지능 측정도구의 개발 및 사회지능 함양 중재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1,A7].

IV. 논 의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출판된 국내외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를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타 학문 분야에서 사회지능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아직 연구가 미미하였다. 사회지능의 개념이 처음 대두된 1920년 이후 경영학, 교육학, 관광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회지능 측정도구 개발[26] 및 직무열의, 직무만족 등 변수와 관련된 연구[3]가 진행된 반면, 아직 간호학에서는 사회지능과 유사한 개념인 감성지능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것[7] 외에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초기 단계로 아직 많은 연구가 수행되

Table 3. Key Findings and Suggestion of the Included Studies

(N = 12)

Dimension	Key finding(Appendix No.)	Suggestion(Appendix No.)
Individual	SI [†] is a key personal resource for mitigating job stressors such as burnout, turnover intention, and anger responses. (A2, A3, A9, A12)	SI [†] enhancement programs are needed to improve nurses' stress management and emotional well-being. (A3, A9, A12)
Job	SI [†] is a core competency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practice and enhances patient-centered care, and is influenced by clinical experience. (A4, A5, A8, A10, A11)	Integrate SI [†] training into clinical education and preceptorship programs, with tailored strategies for specific job contexts. (A4, A5, A8, A10, A11)
Organizational	At the organizational level, SI [†] is a key competency for nurse managers that enhances team job engagement, is linked to social capital within the unit, and requires managerial-led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6)	Nursing organizations should implement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focused on enhancing the SI [†] of managers to foster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and improve team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A6)
Conceptual & measurement	Though SI [†] is a key competency, research relies on general tools that may not capture the unique context of nursing practice. (A1, A7)	A new, valid tool reflecting the specific attributes of nurses' SI [†] in the clinical setting is urgently needed. (A1, A7)

† SI = Social Intelligence

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1920년에 Thorndike[1]에 의해 개념이 처음 제시된 이래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침체기에 있다가 2010년대부터 환자중심 간호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환자의 권리 의식 향상, 의료서비스의 질적 요구 증대와 맞물려 사회지능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지능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학에서 연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하위개념인 의사소통 기술, 임상실무 역량과 같은 구체적 기술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지능 연구가 진행[15]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사회지능 연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편(25%)으로 검색된데 반해, 2020년~2025년에 사회지능 연구 비율이 75%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 AI 기술이 도입되는 변화의 중심에 간호사의 고차원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고유 역량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A7].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업무 적응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으므로[A10] 현재 급변하는 의료 시스템에서 간호사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인 사회지능 함양을 위해 체계적이고 근거 기반의 사회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국외 2015년, 국내 2016년을 시작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국내외 연구 시작 시기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검색조건에서 언어의 제한을 영어와 한국어로 하여 제한적이지만 특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아시아 및 중동 문화권에서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므로 특수한 문화적·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향후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및 중동 문화권은 공통적으로 집단주의를 중요시하며, 위계질서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27] 개인 중심의 서구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지능의 필요성이 더욱 조명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사회지능의 연구방법에 있어 조사연구가 9편, 문헌고찰 연구 2편, 개념분석 연구가

1편을 차지하였다. 최근 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분석 연구[A7]가 1편 수행된 점은 간호학에서 사회지능의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여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가설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며,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과 실제적 검증을 통해 기존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28]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개념분석을 수행했는데 현장작업 단계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사회지능의 정의를 도출하여 현상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호사의 사회지능을 함양하는 중재 연구는 단 한 편도 수행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향후 다양한 설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실험 연구를 비롯하여 간호사의 사회지능 관련 간호 연구 및 교육, 실무 발전을 위한 근거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사회지능 측정도구를 사용한 총 9편의 연구 중 6편이 TSIS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트롬소 대학 심리학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간호사 및 의료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중 1편은 TSIS와 Ahmad와 Ayed[22]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인 Social Intelligence Scale과 Alenezi 등[23]이 Emotional-Social intelligence(ESI) 설문지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다. 그 외 2편의 연구에서는 Walker 등[25]이 개발한 신규 간호사의 업무 준비성 척도를 간호사의 사회지능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1편의 연구에서는 Goleman과 Boyatzis[9]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조직의 리더 및 관리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이는 수평적 동료 관계나 환자-간호사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지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분석 연구 결과[A7]를 바탕으로 독특하고 복잡한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호사의 사회지능 측정도구를 새롭게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문헌 내 사회지능 연구의 관련 변수를 개인 차원, 업무 차원, 조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사회지능이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성격 특성이 아

나라, 다차원적인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로 사회지능이 현재 의료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고[A11], 특히 간호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 차원의 사회지능 함양 중재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A6]. 이러한 결과는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현대 의료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기회였으며, 향후 연구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개인 차원을 넘어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연계된 조직 차원의 사회지능 함양 중재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확인[A3]은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종합하고 임상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연구 주제, 즉 연구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식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근거를 종합하여 실무적 제언을 도출하는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본질적 의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개인, 조직, 직무와 연관된 더욱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사회지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추가연구를 제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간호사의 사회지능을 주제범위 고찰한 논문은 12편으로 국내외 간호학 분야의 사회지능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간호실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측정도구의 부재와 중재 프로그램이 전무한 연구 공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학에서의 사회지능 주제 분석을 시행한 본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관심을 넘어, 환자중심 간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사의 고유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지능은 간호사의 스트레스 상황과 복잡한 임상 현장에서 빠른 회복과 적응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사 인력 관리와 직무 향상을 위해 사회지능 향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사회지능 관련 교육(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또는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소진 조절과 조직 몰입을 높여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분석 대상 논문 수가 12편으로 비교적 적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향후 연구에서 제언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아시아 및 중동 문화권의 사회지능 연구 동향이 많다는 분석 시사점에 따라 다양한 언어 기준을 포함하여 문헌을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201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학위논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판범위 및 출판언어 등을 확장 변경하여 탐색해보는 시도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추후 검색기준을 재조정하여 사회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Thorndike EL. 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s Magazine. 1920;140:227-235.
2. Marlowe H. Social intelligence: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 and construct independ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86;78:52-58.
3. Ji SH, Kang YS.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work engagement and proactive behavior in the link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16;23(4):55-80.
<http://doi.org/10.14396/jhrmr.2016.23.4.55>
4. Tanushree S, Sareen P. Higher employee engagement through social intelligence: a perspective of Indian scenario. Employe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Journal. 2023;35:111-126.
<https://doi.org/10.1007/s10672-022-09404-7>
5. Lee TW, Kim PJ, Lee HY, Shin HK, Lee HS, Choi YN.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culture of clin-

- ical nurses: focusing on authentic leadership and team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1;27(1):34-42.
<https://doi.org/10.11111/JKANA.2021.27.1.34>
6. Crowne KA. Cultural exposur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ultural intelligence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2013;13(1):5-22.
<https://doi.org/10.1177/1470595812452633>
7. Choi SY. Concept analysi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1;28(2):263-274.
<https://doi.org/10.7739/jkafn.2021.28.2.263>
8. Ki ZT. Linking cultural intelligence to satisfaction with staying in the host country and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1):422-429.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422>
9. Goleman D, Boyatzis R. Social intelligence and the biology of leadership. *Harvard Business Review*. 2008;86(9):74-81.
10. Hong NK. Dewey's concept of social intelligence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2013;35(1):141-159.
<https://doi.org/10.5392/10.15754/jkpe.2013.35.1.007>
11. Stacey R, Bernice R, Helen R. Developing work readiness in graduate nurses undertaking transition to practice program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2021;105:105034.
<https://doi.org/10.1016/j.nedt.2021.105034>
12. Colquhoun HL, Levac D, O'Brien KK, Straus S, Tricco AC, Perrier L, et al. Scoping reviews: time for clarity in definition, methods, and reporting.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2014;67(1):1291-1294.
<https://doi.org/10.1016/j.jclinepi.2014.03.013>
13. Munn Z, Peters M, Stern C, Tufanaru C, McArthur A, Aromataris E. Systematic review or scoping review? guidance for authors when choosing between a systematic or scoping review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2018;18(1):143.
<https://doi.org/10.1186/s12874-018-0611-x>
14. Brien SE, Lorenzetti DL, Lewis S, Kennedy J, Ghali WA. Overview of a formal scoping review on health system report cards. *Implementation Science*. 2010;5:2.
15. Geun HG, Park 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nursing productivity among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9;30(2):226-233.
<https://doi.org/10.12799/jkachn.2019.30.2.226>
16. Arksey H, O'Malley L.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2005;8(1):19-32.
<https://doi.org/10.1080/1364557032000119616>
17. Levac D, Colquhoun H, O'Brien KK. Scoping studies: advancing the methodology. *Implementation Science*. 2010;5:69.
<https://doi.org/10.1186/1748-5908-5-69>
18. Lockwood C, Dos Santos KB, Pap R. Practical guidance for knowledge synthesis: scoping review methods. *Asian Nursing Research*. 2019;13(5):287-294.
<https://doi.org/10.1016/j.anr.2019.11.002>
19. Roh M, Kang HS, Kwon YE.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on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a scoping review.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2;20(4):779-790.
<https://doi.org/10.14400/JDC.2022.20.4.779>
20. Seo HJ. The scoping review approach to synthesize nursing research evid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20;32(5):433-439.
<https://doi.org/10.7475/kjan.2020.32.5.433>
21. Silvera D, Martinussen M, Dahl TI. The tromsø social intelligence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social intelligenc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001;42:313-319.

- <https://doi.org/10.1111/1467-9450.00242>
22. Al-Makahleh AA, Ziadat AH. Social intellig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alente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King Abdullah II schools for excellence, Jordan. *Educational Research*. 2012;3(1):785-798.
 23. Alenezi A, Saleh MS, Elkalashy RG. Predicting effect of emotional-social intelligence on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African Journal of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2020;12(3):144-148. <https://doi.org/10.7196/ajhpe.2020.v12i3.1365>
 24. Walker A, Storey KM, Costa BM, Leung RK. Refine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 readiness scale for graduate nurses. *Nursing Outlook*. 2015;63(6):632-638. <https://doi.org/10.1016/j.outlook.2015.06.001>
 25. Yeu YJ.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employee's emotional labor on customer orient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intelligence[master's thesis]. Suwon: Kyonggi University; 2012. p. 1-131.
 26. Moon T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lligence scal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0;9(2):127-141.
 27. Lim H, Lee HJ, Lee SE, Park JH, Kim HJ, Cho E, et al. Systematic review o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for pre-licensure nursing student in East Asia.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2024;30(1):132-152. <https://doi.org/10.14371/QIH.2024.30.1.132>
 28. Fitzpatrick JJ, Wallace M, editors. *Encyclopedia of nursing research*.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6. p. 1-832.
- Appendix. List of studies of scoping review**
- A1. Wang S, Chen Y, Zhao JP, Zhao SX, Lu Pji. Research progress on social intelligence in nursing field. *Chinese Nursing Research*. 2015;30(4):392-395. <https://doi.org/10.3969/j.issn.1009-6493.2015.04.020>
 - A2. Park HI, Lee KH. The effects of social intelligence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4):325-336. <https://doi.org/10.14400/JDC.2016.14.4.325>
 - A3. Lee KR, Kim JM.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in nurs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1):22-32. <http://doi.org/10.11111/jkana.2016.22.1.22>
 - A4. Rogers S, Redley B, Rawson H. Developing work readiness in graduate nurses undertaking transition to practice program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 Today*. 2021;105:105034. <https://doi.org/10.1016/j.nedt.2021.105034>
 - A5. Almotairy M, Nahari A, Moafa H, Alanazi AA. Work readiness of newly graduated nurses transitioning to practice in Saudi Arabia: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022;30:4523-4532. <https://doi.org/10.1111/jonm.13893>
 - A6. Sahar HH, Atallah A, Hanan EE, Manal Saleh MS. Effects of head nurses' leadership behaviors and social intelligence on staff nurses' job involvement. *Egyptian Journal of Health Care*. 2022;13(4):1308-1322. <https://doi.org/10.21608/ejhc.2022.269545>
 - A7. Lee KR, Lee NK, Oh H. Concept analysis of social intelligence of nurses using hybrid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4;54(3):459-474. <https://doi.org/10.4040/jkan.23121>
 - A8. Özkan S, Yıldız A. Determin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intelligence and autism awareness levels of paediatric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ciences and Research*. 2024;14(9):401-411. <https://doi.org/10.52403/ijhsr.20240952>
 - A9. Bozkurt Tonguç A, Karakaş SA. Comparison of soci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levels of nurses and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 different variables. *Göbeklitep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ciences*. 2025;8(19):54-64.
<https://doi.org/10.5281/zenodo.16365163>
- A10. Qu Y, Gao W, Hayes C, Crawford K. Factors associated with newly graduated nurses' work readiness during a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25;144:106413.
<https://doi.org/10.1016/j.nedt.2024.106413>
- A11. Kim JJ. The effects of hospital nurses'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on patient-centered care. *Journal of Safety Culture Research*. 2025;42:25-36.
<https://doi.org/10.52902/kjsc.2025.42.25>
- A12. Tiryaki Sen H, Türkmen E, Kuşcu Karatepe H, Yurtsever D. A pathway for nurses from work strain to anger: mediation of social intelligence.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25;25:44.
<https://doi.org/10.1186/s12913-024-11845-9>
-